

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5,270.4km, 2014년보다 307.6km 늘어

- 국립해양조사원,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(2021~2025) 결과 발표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‘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(2021~2025)’ 결과를 발표하였다.

국립해양조사원이 처음으로 공표한 2014년(2001~2013) 해안선 길이와 2026년(2021~2025) 해안선 길이를 비교한 결과, 전체 해안선 길이는 당시 14,962.8km에서 15,270.4km로 307.6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단위 : km(%)

구 분 (전국단위 조사년도)	2014 통계 해안선조사 (2001~2013)	2026 통계 제2차 변화조사 (2021~2025)	변화량 (2014~2026)
자연해안선 길이(비율)	9,877.1(66.0)	9,565.2(62.6)	-311.9
인공해안선 길이(비율)	5,085.7(34.0)	5,705.2(37.4)	619.5
계	14,962.8	15,270.4	307.6

이처럼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지만,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2014년 66.0%에서 2026년 62.6%로 감소했으나,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같은 기간 34.0%에서 37.4%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이 개발과 이용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, 실제로 항만·어항 개발, 방파제 설치, 연안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침식과 퇴적 등 자연적인 요인도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번 통계는 단순히 해안선의 길이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 해안선 변화 및 연안개발 추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차성신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“해안선 변화조사 자료는 국토면적 산정, 지방정부 간 어업권 배정, 보통교부세 지급 등 행정·법률·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국가통계”라며 “앞으로도 정기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해안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이번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 통계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(<http://www.khoa.go.kr>)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(<http://www.data.go.kr>)에서 볼 수 있으며,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	책임자	과 장	김정현 (051-400-4103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호 (051-400-4280)